



이 천 용
임업연구원 연구관

도시 속의 문화, 역사 속의 홍릉 숲



▲수목원의 겨울

서울의 많은 역사 문화적 유산의 하나인 홍릉은 한때 조선조 제26대 왕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민비)가 묻혔던 곳으로 주변의 숲은 능부속림(陵附屬林)이었기에 오늘날에도 숲이 잘 보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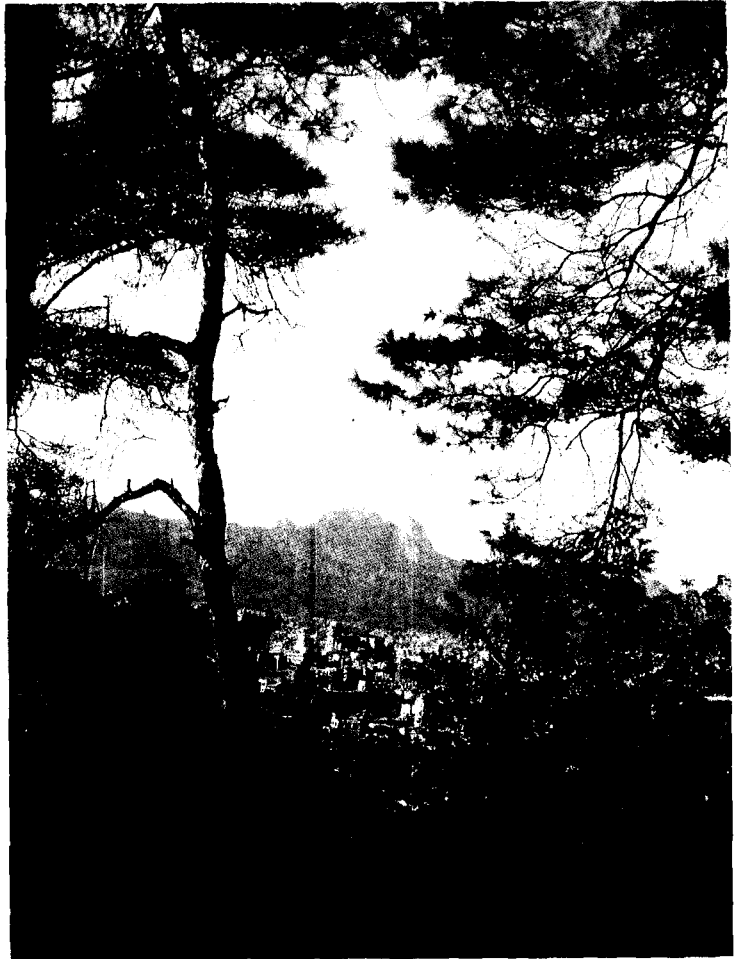
번잡한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20여분 거리에 위치한 임업연구원 내의 홍릉 숲은 공기가 맑아 후덥지근한 여름에도 상당히 시원하고 봄의 신록과 꽃의 잔치, 여름의 녹음과 흔히 들을 수 있는 평의 울음소리, 가을의 활엽수가 뽀

어내는 형형색색의 빛깔, 겨울에 눈 덮인 나무는 이방지대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홍릉 숲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수목들을 한 곳에 모아 수목의 특성을 쉽게 조사하고, 조림가치와 이용성, 유전자 보전 등 임업

연구의 요람이다. 1920년대초 부터 전국 각지에서 종자 및 묘목을 수집하여 1940년까지 버드나무원, 오리나무원, 고산식물원, 관목원(灌木園), 야초원(野草園) 등을 조성하였으나 6·25전쟁 중 대부분의 수목원이 파괴되었다. 일부 남아있는 나무들은 크게 자라고 있으며, 그 중 과학기술연구소로 편입된 외국수목원은 높이 30미터 이상의 큰 나무도 있다. 현재 10헥타르에 침엽수원, 활엽수원, 관목원 등 8개 수목원과 외국수목원 및 식약용식물원, 고산식물원이 있으며 목본 75과 1,224(외국수종 330종), 초본 82과 811종 등 157과 2,035종의 식물과 난대수종 152종이 온실에 살고 있다. 수목원은 비록 규모는 작으나 우리나라 수목원의 효시로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연관찰학습장과 입학·생물학 및 약학계 대학생들의 전문실습장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홍릉 숲으로 들어서면 우선 밖과는 뚜렷이 다른 풍광이 나타난다. 물론 콘크리트 건물이 정면에 보이지만 가을의 은행나무 가로수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히 환상적이다. 산책길을 따라 가면 편백이 살아있는 방향물질을 내뿜어 우선 기분이 상쾌하다. 숲속에는 깊지는 않지만 이름모를 풀들이 나무아래 그늘을 피해 군데군데 나 있고 얼마전 공해가 많은 지역에 나타난다는 미국자리공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 매달 산림문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북한산

화정책의 일환으로 숲속사건전을 오솔길 따라 개최하므로 또다른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직원들이 건물을 지을 때 기념으로 심은 벚나무가 봄의 화사함을 가장 먼저 알리며 흐드러지게 피는데 이 때쯤이면 으레히 벚꽃의 낙하를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나무밑에서 조출한 파티를 연다. 그 결의 노란 개나리도 가지를 마음껏 뻗으며 봄을 찬미한다. 봄부터 홍릉 숲은 좋다. 많

은 입장객들이 들어서자마자 이런 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얼마나 좋을까하는 중얼거림을 들을 때마다 행복감을 느낀다.

홍릉숲은 아직까지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볼 수 있는 장소가 넓지 않다. 그러나 숲속의 나무와 식물앞에 써 있는 이름을 하나씩 보면서 가면 정말 오래 걸린다. 이름이 새롭고 예쁘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졌을까, 내력까지 알려면 아마 몇 달이라도 시간이 부



◀소나무 숲



▼소나무와 자작나무

죽할 것이다. 참빗살나무, 난티나무, 말채나무, 쪽동백, 다릅나무 등이 이모양 저모양으로 자라고 있으며 땅 가까이에는 금낭화, 쪽두리풀, 동자꽃, 은방울꽃, 매발톱꽃, 천남성, 등굴레, 원추리 등이 계절에 따라 꽃과 열매와 잘 생긴 잎으로 자기를 뽐낸다. 귀한 식물을 가깝게 볼 수 있어 좋은 흥릉 숲은 지리산이나 한라산의 해발 1400미터 이상에서나 숲으로 볼 수 있는 구상나무(*Abies koreana*)도 산다. 종비나무(*Picea koraiensis*)나 잣나무(*Pinus koraiensis*)의 영어 이름과 같이 뒤의 한국을 가리키는 글은 곧 우리나라 특산임을 증명하고 있다. 지리산 반야봉에 있는 구상나무 숲은 한라산의 그것보다 훨씬 깃푸르고 잘 자라서 나무의 나이와 함께 위압감마저 주지만 원래 자라고 싶은 곳과 환경이 달라서인지 그렇게 싱싱하지는 않은 듯하

다.

반대편의 흰 옷을 입은 자작나무가 반긴다. 대학시절 입학도들은 껍질을 얇게 벗겨 연서(戀書)로 이용하는데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다. 자작나무는 빙하기가 끝나고 가장 먼저 대륙에 들어온 나무로서 종자가 많이 열리고 가벼워 바람에 멀리까지 날라가며 햇빛을 상당히 좋아한다. 아주 춥고 해가 짧은 북쪽지방에서 잘 자란다. 사우나로 유명한 핀란드에도 자작나무가 가문비나무, 구주적

송과 함께 중요한 수종인데 사우나실에서는 혈액 순환을 돕기 위해 잎이 달린 자작나무가지를 묶어 가끔 몸을 때려준다. 왜 하필 자작나무여야 하는지 모르지만.

마로니에 4형제가 건물옆에서 의자를 품에 안듯이 둘러 앉아서 넓은 그늘을 만들므로 사람들이 어린애와 쉬는 모습을 흔히 본다. 평화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도심에 많지 않지만 흥릉 숲은 그런 분위기를 준다. 가을에는 그 큰잎의 가장자리 부터 노랗게 물

들이고 밤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열매를 땅에 떨어뜨려 멋모르는 사람들은 밤인줄 알고 깨물다가 아주 쓴 맛을 보게 된다.

붉은 옷을 입고 우리의 기상을 대표하는 소나무 밑의 고산식물 원에는 더더욱 모르는 풀들이 사는데 이름만 봐도 신기하다. 노루오줌, 짙신나물, 맑은 대쑥, 소리쟁이, 흑췌기풀, 큰까치수영, 은

닌 사람에게 먹이를 공급한다. 아무리 말려도 도토리를 씹는데 물론 상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를 알지만 그래도 씹는 기쁨을 만끽하려는가보다.

바위 위에는 유럽도시의 청동상에 낀 녹색처럼 파르스름한 색을 띠고 있어 숲이 더욱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요즘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국산목재와 외

로부터 있었던 우물을 지나 홍릉터로 올라가는 길의 은행나무는 바람이 불 때 황금색의 부채를 들고 춤을 춘다. 지난 가을 돌풍에 아까시나무나 밤나무의 쇠잔한 가지가 많이 부러졌다. 비탈길을 올라가기 쉽게 쇠줄에 엮은 통나무 계단 양옆에 작은키나무와 큰키나무가 섞여 조성되어 있는데 봄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층층히 피어 있다. 소나무가 맨 윗층의 공간을 대부분 점령하고 있는데 하나인 밑둥에서 세개의 나무 줄기가 나온 모습도 있고 대부분 구부러진 모습이다. 좀 더 오르면 편평해 지면서 칠엽수와 같은 외국수종 밑에 홍릉터라는 표석을 만난다. 과거 명성황후의 묘가 있었던 자리이다.

일제의 만행을 잠시 생각해 보고 오른쪽 산으로 올라가면 건물이 전혀 보이지 않아 숲에 온 듯하다. 이튿모를 산새와 꿩의 울음 소리가 들리고 산비둘기가 난다. 어지러운 활엽수 사이에 한국인의 정취를 뽐내는 소나무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관찰해 보는 여유를 가져본다. 꿩이 갇힌 새장을 지나면 벗나무와 소나무가 어울려 살고 북한산의 바위가 이곳에 떨어져 있는지 바위에 햇빛이 가득하다. 도심에서 야생동물인 다람쥐와 산토끼를 가까이서 관찰하여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 아이들이 먹이를 주면서 희유하면 그제서야 아는 체한다.

▼홍릉숲 탐방



방울꽃, 뱀무, 멸가치, 잔대, 뽕꼭나리, 왕씀배, 우산나물, 누룩치 등... 꽃도 좋고 잎도 가지가지인 풀들은 같이 심어 놓으니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가끔 소나무사이의 단풍나무는 붉은 빛이 햇살에 빛나고 살랑거리는 바람이 지나치면 숲의 정취를 더 한다. 단풍의 상징성을 왜 단풍나무가 가지고 있는지를 느낌으로 알려준다. 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불면 함께 살던 상수리나무가 도토리알을 길가에 놓아 다람쥐가 아

재로 지은 통나무집이 경쟁하듯이 서 있고 산림청과 임업연구원 사이에 정말 넓은 잔디밭이 건물을 작게 만들고 있으며, 중앙에 멋지게 균형을 잡고 서 있는 반송은 90여년 동안 크면서 연구원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상징물이 되었는데 요즘은 힘이 드는지 팔 한쪽이 쳐져서 나무로 받쳐 놓았다. 주변에 측백나무에서 퍼진 새끼나무가 크고 작게 자리를 잡고 간간히 나타난 고사리는 오히려 앙증맞다.

발걸음을 떼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재촉하는 엄마들. 그저 건설로 보지 말고 좀 자세히 관찰하면 숲의 소리와 모습을 진솔하게 느낄 수 있을텐데 아무래도 길길이 먼가보다.

새우나무, 흰속소리나무, 부계꽃나무, 산가막살나무, 음달종덩굴 등 희한한 이름이 써 있는 팻말을 나무와 일치시키려 해도 잘 안되는 길을 들어서면 깊은 산의 숲속과 같은 착각이 든다. 멀리서 들리는 도시의 웅웅거리는 소리만 없다면.

분홍색의 진달래꽃이 아닌 흰진달래가 색다른 풍경을 연출하는 것을 뒤로 하고 사방으로 길이나 있으므로 발길 닿는대로 가던지, 피곤하면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서 만든 의자에서 쉬었다 간다. 작은 계곡에 보라빛 열매를 다닥다닥 매단 작살나무 건너편에는 어린 삼나무가 품종별로 줄을 맞추어 있는데 그 안은 조금 어두워 으시시한 감도 들지만 그것도 잠깐 곧 산등성이에 다다른다. 계곡 중간에는 원앙이들이 사는 연못이 있어 그들의 유희를 쳐다보는 즐거움도 또한 괜찮다. 새장에 갇혀 큰 감흥은 없지만 아이들은 좋아하니 그냥 지나가지 말고 원앙에 대한 이야기로 흥미를 주면 좋을 것이다.

산등성에는 여러 조경회사가 기증한 나무로 만든 정원이 있다. 옮겨 심은 지 얼마 안되어 숲과 구분되지만 숲과 함께 살므로 곧

친화될 것이다. 여기서 홍릉 숲 정상 근처에 물들고 있는 단풍의 물결을 보노라면 새로운 기쁨이 솟는다. 산 밑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대부분은 바빠서, 또는 시기를 놓쳐서 쉽게 볼 수 없는 경관이다. 소나무를 뒤로 하고 서 있는 자작나무가 시점의 중앙에 머무르고 청명한 가을하늘 저멀리 북한산이 보이지만 웬지 손으로 잡을 수 있을만큼 가까이 있는 듯하다. 자주 올라와 볼 수 없는 광경이라 그런지 유난히 가슴이 벅차 오른다. 길가에 점점히 초록의 물결사이에 박힌 자작나무는 발가벗은 나무가지가 보드라운 질감으로 숲의 두께를 느끼게 해주어 흰옷이 더욱 눈부시다.

동산에서 평지로 내려선 끝에 있는 3수목원에는 야생동물의 먹이인 산수유, 산딸나무, 백당나무, 오갈피나무의 열매가 곳곳에 빨갛게 달려 있고 길 옆 연못에는 커다란 잉어가 큰 꼬리를 서서히 흔들며 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나와 자연이 함께 어울린 듯하여 시간가는 줄 모른다. 새가 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망을 쳤다가 거둔 후에는 가끔 히어멀건 해오라기가 호시탐탐 물가에서 고기를 노리는 광경도 볼 수 있다. 잣나무가 숲가에서 마음대로 가지를 뻗어 한국 고유의 수종답게 자라고 있으며 나무에 걸려 있는 타원형 판에는 숲 안과 숲 밖의 물, 공기, 야생동물을 비교한 글이 적혀 있다. 예를 들면 '숲 속의 공기

1리터에는 먼지가 천개에서 삼천개로서 시내의 1/3~1/13이다'고 한다. 숲이 주는 혜택을 숫자로 표현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이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실제로 숲에 들어와 보면 느낌만은 확실히 도시와 다름을 안다.

분재온실을 지나 약용식물원에는 보라빛의 용담, 노란 산국 등 작은 풀들이 네모난 나무상자속에 기하학적으로 실려 있다. 군데군데 서 있는 황벽나무 껍질의 괴상함에 놀라는 눈을 갖고 있어야 작은 풀들을 아름답게 보거나 귀함을 알 수 있을텐데 그냥 지나쳐 버리면 한낱 풀에 그치지 않는다. 아는 것 만큼 보인다는데 더 많이 눈에 띄기를 희망해 보자.

홍릉 숲은 수목원의 훼손을 막고 임업연구원의 연구분위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일요일만 산 중턱에 있는 조경원의 숲까지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 산책로와 숲이 정리되면 조만간 전체면적을 개방할 것이다. 그러나 개방에 따른 인위적인 피해도 많다. 인간에게는 땅에 떨어진 것도 토리나 은행을 줍고 싶어 하고, 예쁜 꽃은 꺾고 싶은 본능이 있나 보다. 숲이 문화의 모태라고 볼 때 숲이 파괴되어 도시에서는 좀처럼 보전하기 어려운 정신 문화까지도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숲의 구성원인 풀한포기라도 아끼는 노력이 절실하다.